

참여마당-대면/비대면 수업

언어적 소통과 학생 수업권 대면 수업 통해 실현될 수 있어



물리학과 허준현
physics2771@knu.ac.kr

“**대면 수업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권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선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2022년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재개됐다. 학우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할 것이다. 가령 다른 학우들을 만나고 동아리 활동, 엠티 등과 같은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기쁨으로 다가올 테고, 아침마다 등교하면서 직접 수업을 들어야 하고 녹화된 수업을 볼 수 없다는 것과 학점표준화제도가 부활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 생활에 대한 동경과 아쉬움이 있고, 대면 수업의 긍정적인 면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했다. 1~2학년일 때는 대면 수업을 경험했고, 3학년과 4학년 1학기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했다. 둘 다 경험해 본 결과 각각 장단점을 알 수 있었고 비대면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을 선호하게 되었다. 필자가 대면 수업을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면 수업일 때는 비대면 수업 때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많다. 필자가 대면 수업을 경험한 1~2학년 때는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교내외 활동 등을 다양하게 했다. 잡지에 글을 쓰고 교수님과 선배들 앞에서 세미나도 해봤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전공강연을 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소중한 인연이 되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등을 함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비대

면 수업일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뿐더러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감소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활동한다고 해도 주로 화상채팅 등으로 모이는 점은 사람들 간에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작년에 활동하다 알게 된 어떤 분은 활동이 끝날 때쯤에서야 실제로 뵙게 됐고 한 학기 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대면 수업이 가능한데도 비대면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수업권 보장이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기되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비대면 수업 초기에는 출석, 과제, 시험 등 여러 부분에서 불공정, 불만, 미흡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학교 커뮤니티 등을 넘어서 등록금의 적절성 여부로도 확장돼 2020년 7월 일부 대학생들이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대면 수업을 오래 경험한 지난 학기를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학우들과의 소통문제 등의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다른 학우들과 토론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기 힘들고, 교수님들도 실제 학생들의 얼굴이 아닌 모니터 화면을 보고 강의를 하는 것에 어색함을 많이 느낀다. 가령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대면 수업이면 아무도 대답이 없어도 학생들의 얼굴 등을 보며 반응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일 때는 이러한 비언어적 피드백을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로 필자가 수강한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왜 아무도 대답이 없죠. 살짝 뺏줄하네요.’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다. 이러한 소통의 장애는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알기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상당 부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면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언스플래쉬)

전면 대면 체제는 시기상조 비대면 수업의 이점 주목해야



전자공학과 이기한
dot32@knu.ac.kr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대면 전환은 시기상조, 학습 측면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더 유용, 또한 절대평가 방식이 경쟁을 벗어나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본령에 부합한다.**”

2020년 1학기 이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지 5학기째이다. 연도 수로 치면 2년 반이다.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저학번과 고학번 사이에 놓여진 간격은 넓고도 깊다. 이른바 ‘코로나 학번’은 대학축제, MT, 미팅, CC 등으로 대표되는 ‘캠퍼스 로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갈증이 큰 상황이다. 캠퍼스 라이프의 맛이라도 살짝 본 고학번으로서 비대면 수업에 찬성하는 건 ‘기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면-비대면 수업’ 논의를 캠퍼스의 낭만으로 아름답게 덧칠하고 넘기기엔 중대한 일들이 여럿 남아 있지 않은가.

먼저 감염병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비대면 수업은 필수적이다. 대면으로 전환되면 교내와 그 주변 상권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코로나 전파 위험도 폭증하는 것은 명약관화다. 집단감염 사태가 교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성이 커지는 것이다.

혹자는 코로나를 단순히 감기로 치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80대 이상 노년층의 코로나 사망률은 거의 60%에 육박한다. 심하게 앓지 않는다 해도 높은 전파력과 감염 재생산지수를 가진 코로나의 특성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취약층들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코로나 정책의 불확실성도 이를 한 몇 거둔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

하고 있다.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훗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등한다면, 이전의 예처럼 언제든지 부활할 수도 있다. 만약 학기 중간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기숙사 입사, 자취를 택한 학우들은 문자 그대로 봉 뜨게 된다. 이로 인해 손실되는 매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코로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진 비대면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로 학습 측면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더 낫다. 혹자는 이 점에선 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므로 대면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집중도를 떨어트려 학습력을 떨어트린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 전공과목의 경우 수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대면 강의의 경우 필요하면 녹화하거나, 올려진 녹화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며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지만 대면 강의의 경우 당연히 불가능하다.

게다가 비대면 수업 유지 시 성적 산출 방식이 절대평가로 유지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취업 스펙을 위한 소모적인 학점 경쟁에 몰려왔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하에선 관

심사가 학업 성취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하는 것’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는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본령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5학기 동안 시행되었던 절대평가 제도가 이런 학점 경쟁 과열을 완화시켰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학습 측면에서도 비대면 수업 유지가 더 이득인 것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학교는 사실상 대면 체제로 전환했으나 비대면 수업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하지 않는 한 전면 대면 전환은 시의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퍼스의 낭만은 조금 유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싶다. 무려 다섯 학기를 참아왔는데, 한 학기 정도는 조금 숙고해 봐도 좋지 않은가.

참고로 경희대학교는 봄에 더 아름답다.



(사진=언스플래쉬)